

錄 取 書

녹 음 일 시	2014년 4월 16일 9시 42분 ~ 11시 57분
녹 음 장 소	해양경찰청 경비전화(2594)
대 화 자	본문 기재
녹 취 분 량	표지 外 42쪽

본 녹취록은 녹음CD의 내용과 일치함을 증명함.

2016년 4월 19일

속기법인 대한

(사업자등록번호 : 264-81-30602)

속기사 林鍾憲 ㉞

(자격번호 : 06-G2-000008)

- ▶ 본 녹취록은 녹음일시, 장소 및 대화자, 지문의 설정은 의뢰인이 한 것이며, 녹음 청취의 미비 등으로 인한 명사나 고유명사의 표기에 오기가 있을 수도 있음.
- ▶ 이해력을 돕기 위하여 불필요한 어구 첨삭이나 일부 사투리,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음.
- ▶ '***' 표시는 청취불능 표시임.



◆ 녹음 순번 : #0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42분 1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남자 1

남자 2 : 예. 해경청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중앙119구조본부인데요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우리 쪽에서도 헬기 그쪽 운항 가능한 상태고요. 자체 대기하고 있으니까 무슨
상황 있으면 바로 연락만 주십시오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 지금 저희 상황 있어가지고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8분 5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해양수산부 해도수로과

남자 2 : 예. 해경청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해양수산부 해도수로과 박**이라고 합니다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이번에 관매도 그거 거기 대략적인 경위도 좌표 좀 알 수 있을까요?

남자 2 : 관매도요? 뭐 어떤 거요?

남자 1 : 관매도 지금 여객선 침몰하는 거요.

남자 2 : 아, 저희가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.

남자 1 : 아, 예.

남자 2 : 조금 이따가 연락 주십시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09시 59분 3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본청 정보통신과 문나리 / 본청 정보통신과 이규재

문나리 : 예. 문나리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그 계장 뭐하나?

문나리 : 방금 전화통화 하셨는데요.

남자 1 : P123정에 빨리 그 저기 우리 영상 설치한 거 있잖아. 그거 빨리 켜라 그래.

문나리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빨리... 누가 그거 담당하나?

문나리 : IT관제센터 이규재 경장입니다. 연락하겠습니다.

남자 1 : 응.

(통화연결음)

이규재 : 예. 감사합니다. 정보통신과 이규재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야, P123정 같으면 모바일 영상 있잖아. 그거 빨리 켜가지고 이리 연결시켜, 상 황실로.

이규재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빨리 내려오라 그래!

이규재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0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00분 40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본청 정보통신과 문나리 / 본청 직원

문나리 : 문나리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계장 어디 가고 통화중이야?

문나리 : 잠시만요.

남자 2 : 예, 접니다.

남자 1 : 뭐하는 거야? 지금 통화하고 있어?

남자 2 : 지금 지방청장한테 저쪽으로 청취하라고 연락하려고,

남자 1 : 그게 문제가 아니고, 지금 123정이 현장에 도착했는데 서거차도하고 1.8마일이야. 그러면 모바일 영상에 나와가지고 여기 띄워줘야 될 거 아니가?

남자 2 : 예, 알았어요.

남자 1 : 빨리 빨리 하라 그래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20분 1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 / 콜센터 / 여수항공대

콜센터 : 감사합니다. 해경입니다.

박재창 : 여수항공대 부탁드립니다.

콜센터 : 예.

(통화연결음)

남자 1 : 항공대 **입니다.

박재창 : 예. 수고하십니다.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남자 1 : 예, 안녕하십니까?

박재창 : 예. 우리 지금 여수 사고 관련해서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?

남자 1 : 지금 회전익은 57분에 이륙해서,

박재창 : 구조대 태우고요?

남자 1 : 구조대 태우러 왔습니다.

박재창 : 태우러 왔다고요?

남자 1 : 예. 구조대 태우고,

박재창 : 어디로 왔습니까?

남자 1 : 신월동으로 왔습니다.

박재창 : 신월동으로요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신월동에서 태워서 현장으로 가네요?

남자 1 : 예, 예. 그리고 여수 고정익은 지금 김해공항으로 가서 김해 구조단 태우고 목포





공항으로 갈 예정입니다.

박재창 : 아, 그럼 여수 고정익이 부산 가서 부산에서 목포로 가는 겁니까?

남자 1 : 예, 예.

박재창 : 목포 가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?

남자 1 : 김해에서 목포 구조단 태워서 목포에 내리라는 지시입니다.

박재창 : 아, 그래요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그러면 여수 고정익이 부산 가서 특구단 태우고 다시 목포로 가네요?

남자 1 : 예, 예.

박재창 : 아, 그거 말고 다른 건 없고요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아... 그쪽에는 회전익 하나하고 고정익 하나하고 두 대 있습니까?

남자 1 : 예. 지금 까모프랑 CN-235요.

박재창 : 아, 까모프랑 CN-235요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 거기 몇 번이죠, 전화번호가?

남자 1 : 여기가 경비전화 63-2279번입니다.

박재창 : 2279번이요?

남자 1 : 예, 예.

박재창 : 감사합니다. 수고하십시오.





◆ 녹음 순번 : #0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2분 3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 / 제주서 회전의 항공대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회전의 항공대 한 주임입니다.

박재창 : 예. 수고하십니다.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남자 1 : 예, 예.

박재창 : 우리 제주 항공대에서 나가서 인원 구조하고 있지 않습니까?

남자 1 : 예, 예.

박재창 : 지금 인원들 어디다 지금 내려주고 있습니까, 구조한 인원들?

남자 1 : 예. 서거차도 방파제가 좀 넓기 때문에,

박재창 : 서,

남자 1 : 서거차도.

박재창 : 거차도 방파제요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거기 지금 계속 내려주고 있습니까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혹시 제주청 말고 남해청이나 다른 청에 회전의 헬기도 거기 내리고 있습니까?

남자 1 : 예. 지금 목포 계 2대가 투입돼가지고 목포 거하고 우리 제주 거하고 순차적으로 지금 구조를 하고 있어가지고,

박재창 : 방파제에 다 내려주고 있습니까?

남자 1 : 예, 예.

박재창 : 그 방파제에 우리 관할 출장소나 그런 거는 있는지는 모르고요?



남자 1 : 아,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

박재창 : 아, 서거차도 방파제요?

남자 1 : 예, 예.

박재창 : 아, 섬에 있는 거네요?

남자 1 : 예, 예.

박재창 : 예, 감사합니다.

남자 1 : 서거차도하고 병풍도 사이거든요.

박재창 : 그 내려준 데가요?

남자 1 : 현장 위치가.

박재창 : 아, 사고 위치가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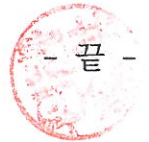
남자 1 : 예, 예.

박재창 : 아, 그러니까 서거차도 방파제에 내려주고 있네요?

남자 1 : 예, 예.

박재창 : 알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

남자 1 : 예,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34분 04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 / 콜센터 / 여수서 해상안전과 /

목포서 안전관리계 박갑수/ 국해연 경위

콜센터 : 예, 감사합니다. 해양경찰입니다.

박재창 : 예, 수고하십니다. 여수 해상안전과 부탁드립니다.

콜센터 : 여수에 안전과요?

박재창 : 예.

콜센터 : 잠시만요.

(통화연결음)

남자 1 : 관리계 경장 **

박재창 : 예, 수고하십니다.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여객선 지금 사고 있지 않습니까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그쪽에 서거차도라고 있던데요.

남자 1 : 예?

박재창 : 서거차도.

남자 1 : 서거차도는 진도 쪽인데요.

박재창 : 아, 서거차도는 진도 쪽이에요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그럼 완도 쪽입니까?



남자 1 : 목포 관할일 겁니다.

박재창 : 아, 목포 관할입니까?

남자 1 : 예. 서거차도요. 진도 서거차도거든요.

박재창 : 아~ 거기 목포 관할이에요?

남자 1 : 예, 예.

박재창 : 알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

(통화연결음)

콜센터 : 해양경찰입니다.

박재창 : 예. 목포서 관리계 부탁드립니다. 안전관리계.

(통화연결음)

박갑수 : 예. 감사합니다. 목포해양경찰서 경사 박갑수입니다.

박재창 : 예. 목포서 관리계죠?

박갑수 : 예, 맞습니다.

박재창 : 여객선 사고 있지 않습니까?

박갑수 : 예?

박재창 : 여객선 사고 있지 않습니까? 사고.

박갑수 : 예, 예.

박재창 : 그런데 우리 서거차도라고 있죠? 관할 중에.

박갑수 : 서거차요?

박재창 : 예.

박갑수 : 예. 거기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.

박재창 : 예. 서거차 방파제에서 우리 헬기 구한 인원을 그쪽에다 지금 내려주고 있다는
데요.



박갑수 : 예.

박재창 : 서거차도에 우리 파출장소 있습니까?

박갑수 : 예. 출장소 있어가지고 지금 구조된 인원 대기할 수 있는 공간 확보해갖고 거기서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.

박재창 : 아~ 서거차도 출장소가 있네요?

박갑수 : 예. 직원 1명에 전경 1명 있습니다.

박재창 : 아, 그러면 직원 전화번호 알 수 있습니까?

박갑수 : 배요?

박재창 : 직원, 직원 전화번호.

박갑수 : 직원 전화번호요?

박재창 : 예, 예.

박갑수 : 잠시만요.

박재창 : 예.

박갑수 : 여보세요?

박재창 : 예.

박갑수 : 예. 지금 그런데 상황이... 일단 전화번호 가르쳐드릴 건데 지금 상황이 막 겹쳐가지고 이게 전화하시면 좀 그럴 건데요.

박재창 : 아, 알고 있습니다.

박갑수 : 예. 일단 전화번호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.

박재창 : 예.

박갑수 : 지금 본청 어디신가요?

박재창 : 수색구조과입니다.

박갑수 : 예, 알겠습니다.

여보세요?

박재창 : 예.

박갑수 : 예. 010-6615-0277 국해연 경위입니다, 국해연.

박재창 : 국해연 경위요?

박갑수 : 예, 예.

박재창 : 아, 알겠습니다.

박갑수 : 예.

박재창 : 예. 수고하십시오.

여보세요?

(전화 끊김)

(통화연결음)

국해연 : 예. 말씀하십시오.

박재창 : 예. 국해연 경위님,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국해연 : 예, 예.

박재창 : 예. 지금 우리 서거차도 방파제에서 헬기로 실어 나른 조난자들 있지 않습니까?

국해연 : 예, 예.

박재창 : 헬기들 지금 방파제 쪽으로 전부 다 들어오고 있죠?

국해연 : 예. 지금 31명 들어왔습니다.

박재창 : 21명 들어왔습니까?

국해연 : 31명.

박재창 : 31명이요?

국해연 : 예. 인원 체크하고 다 지금 적고 있거든요.



박재창 : 아, 그렇습니까? 인원하고 이름하고 다 적고 있습니까?

국해연 : 예. 그리고 안전관리계 전화번호 지금 하려는데 수배가 안 되고 지금 막 안 됩니다, 뭔가.

박재창 : 아, 예. 바쁘신데 고생 좀 해 주시고요. 지금 계시니까 아마 인원 때문에 제가 좀 전화를 드릴 건데요.

국해연 : 아니, 아니요. 그걸 좀 통합합시다. 이것저것 다 해버리면 불통 돼버리거든요. 안전관리계에 하는 걸로 할게요. 그리 좀...

박재창 : 안전관리계하고 본청하고도 시간이 또 텅이 있어가지고요. 안전관리계에 누누구 하고 합니까?

국해연 : 아니, 아니요. 불통돼버려요, 지금.

박재창 : 안전관리계 누구하고 합니까?

국해연 : 예. 지금 안전관리계 그쪽으로 이제 다 해 줄 거거든요.

박재창 : 예. 안전관리계 어디 몇 번으로 합니까, 지금?

국해연 : 아까 전화번호 어떻게 됐지, 아까. 지금 전화 ** 가지고. 잠깐만요.

박재창 : 예.

국해연 : 일단 끊고 다시 할게요. 온 전화번호가 많아가지고.

박재창 : 예. 조난자 중에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 없죠?

국해연 : 예.

박재창 : 다 괜찮죠, 지금 상태가?

국해연 : 예. 지금 상태 아주 나쁜 사람 없습니다.

박재창 : 예, 알겠습니다.

국해연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0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1분 1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 / 콜센터 / 목포청 안전관리계 김유수

콜센터 : 예. 감사합니다.

박재창 : 예. 목포 안전관리계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세요.

콜센터 : 예. 잠시만요.

내선이요?

박재창 : 예.

콜센터 : 예. 52-2548요.

박재창 : 2548이요?

콜센터 : 예.

박재창 : 예.

(전화 끊김)

(통화연결음)

김유수 : 예. 관리계 김유수 경사입니다.

박재창 : 예. 수고하십니다.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김유수 : 예.

박재창 : 지금 혹시 서거차도에서 인원들 현재 집계하고 있습니까?

김유수 : 예. 인원 지금 집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서거차는 출장소이고 전경 1명하고 경찰관 1명이 ** 경찰관 1명하고 전경 1명이 근무를 하는데 지금 주민들을 싹 동원을 해가지고 구조인원들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

박재창 : 아니, 그게 아니고 제가 통화를 했었거든요, 조금 전에. 통화했고, 지금 거기서



계속적으로... 왜냐면 그쪽에서 바쁘니까 전화를 다 일일이 대응을 못하잖아요.

김유수 : 그렇죠.

박재창 :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?

(전화 끊김)





◆ 녹음 순번 : #0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3분 0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 / 남자 1

박재창 : 계속 현장에 전화해야 될지... 일단 알겠습니다.

여보세요?

남자 1 : 현재까지 31명 들어왔습니다.

박재창 : 예. 맞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

남자 1 : 예.

— 卅 —



◆ 녹음 순번 : #1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46분 24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외국인

남자 1 : 예.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여자 1 : (이하 영어 대화)





속기법인 대한은 업무상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합니다.

- ◆ 녹음 순번 : #11
- 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 50분 28초
- 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외국인

남자 1 : Hello?

남자 2 : (이하 영어 대화)



◆ 녹음 순번 : #1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09분 5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

남자 2 : 예.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박 경장님 고생하십니다. 중대본 **입니다.

남자 2 : 예, 예.

남자 1 : 그 화상 환자... 저희 경찰 쪽에서 확인한 건 화상 환자 신고가 들어왔다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요?

남자 2 : 화상이요? VTS로 최초로 신고가 접수 됐거든요.

남자 1 : 예. 가라앉는 사고 때문에 화상 환자가 발생했다는 그 말인가요?

남자 2 : 아, 그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.

남자 1 : 아...

남자 2 : 예. 들은 게 없습니다.

남자 1 : 아니면 원래 화상환자가 탔다는 그 말인지 그걸 잘 몰라가지고.

남자 2 : 아, 예, 그걸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.

남자 1 : 아... 뉴스에는 뭐 큰소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된 건지,

남자 2 : 아, 예. 저희가 지금 진행 중이라서요.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1분 1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남자 2 : 예.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예. 수고하십니다.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지금 불보스 빼고 다 들어갔다고 그러던데, 나왔나요, 나머지 200명들?

남자 2 : 아...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. 확인 지금... 예.

남자 1 : 지금 물 위에 한 몇 명 정도...

남자 2 : 아, 지금... 잠시만요. 확인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
남자 1 : 예. 라이프자켓은 다 입고 있나요?

남자 2 : 예. 입으라고 지금 일단 얘기는 다 해 났거든요.

남자 1 : ** 나갔고?

남자 2 : 예. 수차례 나갔습니다.

남자 1 : 학생들 배에 있을 때는 어디에 모여 있었나요?

남자 2 : 아, 그런 사항은 지금 아직 파악이 안 되고요.

남자 1 : 지금 그 안에 지금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는 거죠?

남자 2 : 아, 그것도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.

남자 1 : 그래요?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대략적으로 함정에서 물에 몇 명 나와 있는지도 확인 안 될까요?

남자 2 : 아, 예. 지금 확인 계속 지금 진행상황이라서요.





남자 1 : 사망자 혹시 나온 거 있어요?

남자 2 : 아, 없습니다.

남자 1 : 현재는 사망자 없고?

남자 2 : 예, 아직 없습니다.

남자 1 : 지금 해경에서 구조 구한 거 공식 몇 명이에요?

남자 2 : 예?

남자 1 : 해경에서 구조한 거 몇 명이에요? 언론에는 190명 나오던데. 어선들 포함해서인 것 같은데.

남자 2 : 아직... 잠시만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아, 죄송합니다만 한 5분 정도 있다가 전화 주시면 저희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.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분담을 하고 있어가지고.

남자 1 : 아, 또 278호정하고 지금 현장하고 거리는 얼마쯤 됩니까?

남자 2 : 아, 지금 도착... 잠시만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278... 잠시만요. (옆 사람에게 물어본 후) 아, 지금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. 20~30분.

남자 1 : 아, 20~30분.

남자 2 : 예. 지금 가고 있거든요.

남자 1 : 아, 그래요?

남자 2 : 예, 예.

남자 1 :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2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4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4분 3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 / 콜센터

콜센터 : 해양경찰입니다.

박재창 : 아, 전화번호만 가르쳐 주세요. 통영이 몇 번이죠?

콜센터 : 예?

박재창 : 통영이 몇 번이죠? 앞에.

콜센터 : 통영이요? 62번이요.

박재창 : 62번이고, 창원은요?

콜센터 : 65.

박재창 : 62요?

콜센터 : 예.

박재창 : 알겠습니다.

콜센터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15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5분 13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총리실 안전관리과장

남자 2 : 예.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남자 1 : 아, 예. 총리실 안전관리과장인데요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지금 **상으로는 지금 배가 완전히 거의 침몰이 됐는데, 현재 구조상황이 어떻습니까?

남자 2 : 아, 지금 저희도 집계 중입니다. 지금...

남자 1 : 근데 지금 배가 침몰이 됐는데 다 구조가 되지 않았어요?

남자 2 : 아,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. 잠시만요.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 정확히 알 수 있는 분 좀 바꿔주십시오.

남자 2 : 예. 잠시만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. 잠시만요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6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6분 12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 / 창원서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구조대 **입니다.

박재창 : 수고하십니다. 창원 구조대죠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여수 관련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, 창원에서?

남자 1 : 창원에서 하고 있는 거 없습니다.

박재창 : 아, 지금 아무 지시도 없고요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아, 지시 없고 지금 아직 그냥 대기만 하고 있습니까? 아니면 대기도 아니고?

남자 1 : 예. 대기만 하고 있습니다.

박재창 : 아, 지금 전화 받으신 분 누구죠?

남자 1 : 오경훈 경사입니다. 누구시라고요?

박재창 : 박재창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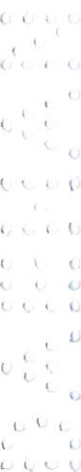
남자 1 : 아, 예.

박재창 : 예. 지금 아직 뭐 떨어진 것 없네요?

남자 1 : 예. 저희 뭐 대기하란 것도 없이 내려온 거 아무것도,

박재창 : 혹시나 지금 상황이 크니까 잠수장비나 이런 장비 있지 않습니까?

남자 1 : 준비해 놓을까요?



박재창 : 예. 좀 챙겨 놓으십시오. 지금,

남자 1 : 저희가 리브로 이동할 수가 없잖아요.

박재창 : 아, 지금 지시도 안 받고 그러니까 모르겠는데, 일단 대기하고 있는 상황은 알겠고 위에 말씀드려가지고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장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, 필요한 거. 지금 배가,

남자 1 : 대원들은 소집하면 1시간 이내에 다 집결되니까.

박재창 : 1시간이 뭐... 그럴까요? 일단 알겠습니다. 장비부터 좀 챙겨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쨌면 출발할지 모르니까.

남자 1 : 알겠습니다.

박재창 : 예, 수고하십시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17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19분 11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해양수산부 상황실

남자 2 : 예. 감사합니다. 해경청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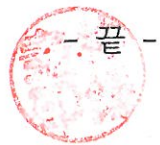
남자 1 : 예.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

남자 2 : 예.

남자 1 : 예. 지금 전원 구조됐다고 나오던데요.

남자 2 : 잠시만요. 구조자 파악해서... 잠시만요. 담당자 알려드릴게요. 카운트 하고 있는
분 전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.

남자 1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018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2분 26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 / 포항서 구조대장

남자 1 : 예. 구조대장입니다.

박재창 : 예, 대장님, 재창입니다.

남자 1 : 어, 재창아.

박재창 : 지금 진도 사고 관련해서 포항에서는 뭔가 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?

남자 1 : 우리 10시 55분에 10명 출발했다.

박재창 : 잠시만요.

남자 1 : 10시 55분.

박재창 : 10시 55분.

남자 1 : 10명.

박재창 : 10명. 뭐 타고 갔습니까?

남자 1 : 10명 출발.

박재창 : 10명 뭐 타고 출발했습니까?

남자 1 : 버스, 버스, 버스.

박재창 : 우리 셔틀버스로?

남자 1 : 어.

박재창 : 아~ 도착하려면 아직 멀었겠네.

남자 1 : 5시간, 6시간 걸린다.

박재창 : 아... 참... 포항에 비행기도 있잖아요, 헬기.

남자 1 : 헬기?



박재창 : 예. 헬기 항공구조 해가지고 가면 좋았을 것 같은데.

남자 1 : 헬기... 일단 헬기는 모르겠고 상황실에서 일단 버스 타고 10명 출발하래서. 포항
에 있는데.

박재창 : 포항 헬기는 어떻게 하노? 아~ 참 좋은,

남자 1 : 그러니까. 포항 헬기는 애기 없어가지고.

박재창 : 장비는 뭐 갖고 옵니까?

남자 1 : 일단 공기통 다 싣고, 공기통 한 16개하고,

박재창 : 다 가지고 가네, 잠수장비?

남자 1 : 어, 장비 일단 다 싣었다.

박재창 : 그럼 대장님 빼고 다 갔네, 그러면?

남자 1 : 대장 나 포함해서 다 간다, 10명.

박재창 : 아, 지금 가고 있습니까?

남자 1 : 그래.

박재창 : 아, 지금 당겨서 받는 거네요.

남자 1 : 그래. 버스로 이제 고속도로 타고 가야지.

박재창 : 아, 알겠습니다.

남자 1 : 응.

박재창 : 수고하십시오.

남자 1 : 응.



◆ 녹음 순번 : #19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4분 04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 / 포항 항공대 / 콜센터

콜센터 : 예. 감사합니다. 해양경찰입니다.

박재창 : 예. 포항 항공대 몇 번인지 가르쳐주고요. 전화 좀 돌려주세요.

콜센터 : 잠시만요. 포항 항공이요?

박재창 : 예, 예.

콜센터 : 43-2377요.

박재창 : 몇 번이요?

콜센터 : 43-2577요.

박재창 : 돌려주세요.

(통화연결음)

남자 1 : 감사합니다. 포항항공대 **입니다.

박재창 : 포항항공대죠?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남자 1 : 예. 안녕하십니까?

박재창 : 우리 포항항공대 헬기 다 나갔습니까?

남자 1 : 예. 전화 돌려드리겠습니다.

박재창 : 예.

(통화연결음)

남자 2 : 예. 항공대 이 경위입니다.

박재창 : 예. 수고하십니다.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남자 2 : 예. 안녕하십니까?

박재창 : 우리 포항항공대는 진도 사고 관련해서 다 나갔습니까?

남자 2 : 아니요. 기상이 많이 나빠가지고 못 나갔습니다.

박재창 : 아, 그럼 아직 못 나가고 있네요?

남자 2 : 예. 못 나가고 있어요.

박재창 : 그럼 아직 기상이 호전될 상황은 아닙니까?

남자 2 : 12시쯤에 예상돼 있는데요.

박재창 : 예. 지금 시간이 급해서 그러는데 구조대는 10명이 전부 버스를 타고 가고 있
는데.

남자 2 : 어느 구조대요?

박재창 : 포항 구조대가.

남자 2 : 어디로 오고 있다고요?

박재창 : 지금 버스를 타고 여수로 가고 있다 그러거든요.

남자 2 : 우리 여기 공항으로 오고 있다고요?

박재창 : 아니요. 여수로 지금 가고 있다는데.

남자 2 : 아, 구조대가요?

박재창 : 예. 한 2~3명이라도 헬기에 타고 여수로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, 지금 그
런 사향을 못 들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쭙니다.

남자 2 : 지방청에서 안 그래도 지방청 지시 받고 지금 대기하고 기상 풀리면 바로 가려
고 딱 준비하고 있어요, 지금요.

박재창 : 아, 그렇습니까?

남자 2 : 예, 예.

박재창 : 아, 그러면 헬기만 갈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원래. 맞죠?

남자 2 : 그렇죠. 예.

박재창 : 아, 지금 구조대장하도고 통화했는데요. 지금 10명이 버스 타고 가고 있다고 그러거든요.

남자 2 : 10명이면 다인데.

박재창 : 예. 다 거기서 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빨리 조치를 할까 싶어서 이쪽으로 전화 드렸거든요.

남자 2 : 아...

박재창 : 아, 그럼 중간에서 탈 데 없을까요? 버스는 가고 있고 비행기는 좀 늦게 이륙하니까 어디서 뭐 부산에서라도 어디,

남자 2 : 그거는 좀 그런데요.

박재창 : 예?

남자 2 : 좀 그런데. 왜냐면 기상 이유 때문에 저희가 장담을 못 해가지고 출발했는가 본데요.

박재창 : 예. 중간에서 어떻게 탈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? 버스로 오면 한참 걸리겠는데. 6시간.

남자 2 : 예. 하여튼 구조대장하고 통화해 보겠습니다.

박재창 : 예. 통화를 지금 바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.

남자 2 : 예. 일단 알겠습니다.

박재창 : 예. 수고하십시오.

남자 2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0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29분 4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 / 콜센터

콜센터 : 감사합니다.

박재창 : 군산 항공대 몇 번입니까?

콜센터 : 군산 항공대요?

박재창 : 예.

콜센터 : 번호 53 누르시고요.

박재창 : 53 누르고,

콜센터 : 2577이요.

박재창 : 2577. 알겠습니다.

콜센터 : 예.





◆ 녹음 순번 : #21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33분 29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 / 군산서 / 동해서

남자 1 : 예. 항공대 **입니다.

박재창 : 예. 군산 항공대죠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지금 군산 항공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

남자 1 : 군산 항공대 지금 현장에 가 있고요. 502호기가 가 있고 서해지방청장님이 뒤에 탑승한 걸로 돼 있습니다.

박재창 : 아, 502호기가 가 있고 서해청장님이 타고 계신다고요?

남자 1 : 예. 9시 35분에 출발해가지고요. 현장에 지금 가 있습니다.

박재창 : 아, 그러면 군산 구조대 구조사가 탄 그건 없겠네요.

남자 1 : 아, 군산서 구조 122구조대 2명 탑승해 있습니다.

박재창 : 아, 군산 구조대 2명이요?

남자 1 : 예.

박재창 : 아, 같이 그러면 거기서 지금 구조하고 있는 겁니까?

남자 1 : 여기서 같이 출발했으니까 현장 상황은 우리가 접속을 못하니까. 구조활동을 하고 있겠죠, 지금 AIS상에 지금 사고 현장에,

박재창 : 거의 2시간 됐는데 그럼 벌써 도착해서 하고 있겠네요.

남자 1 : 그렇죠. 지금 도착한지 한 15분 이상 지난 것 같습니다.

박재창 : 아, 그래요?

남자 1 : 지방청 들어서 지방청장 탑승해가지고 현장에 투입됐습니다.

박재창 : 아, 그런 겁니까? 구조대 누가 탄지는 모르고요?

남자 1 : 아, 그건 군산서로 알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.

박재창 : 알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

(통화연결음)

남자 2 : 정성을 다하겠습니다. 구조대 ** 경장입니다.

박재창 : 예. 수고하십니다.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남자 2 : 예. 안녕하세요?

박재창 : 지금 우리 진도 사고 관련해가지고 항공대에 누가 나갔습니까?

남자 2 : 항공대예요?

박재창 : 군산 항공대 헬기 타고 나갔다는데?

남자 2 : 예. 누가 나갔습니까?

박재창 : 잠시만요.

남자 2 : 김성진 경장하고 김재황 경장 나갔습니다.

박재창 : 김성진 경장하고,

남자 2 : 김재황.

박재창 : 김재황?

남자 2 : 예.

박재창 : 둘이 나갔네요?

남자 2 : 예.

박재창 : 그리고 나머지는요?

남자 2 : 차 타고 왔습니다.



박재창 : 차 타고요?

남자 2 : 예.

박재창 : 몇 명 누가 나왔습니까?

남자 2 : 아...

박재창 : 대장님?

남자 2 : 예. 대장님하고 김종철,

박재창 : 대장 등 총 몇 명입니까?

남자 2 : 대장님 등 3명.

박재창 : 3명요?

남자 2 : 예. 그리고 저희 직원도 나갈 겁니다.

박재창 : 아, 나갈 거고요?

남자 2 : 예.

박재창 : 잠수장비 들고 갔습니까?

남자 2 : 예.

박재창 : 여수로 갔네요?

남자 2 : 예?

박재창 : 여수로 간 겁니까? 어디로 갔습니까?

남자 2 : 목포로 왔습니다.

박재창 : 아, 목포로요?

남자 2 : 예.

박재창 : 목포로 가가지고...

남자 2 : 저희 비번자들도 목포로 가고요.

박재창 : 아, 갈 거고요?

남자 2 : 예.

박재창 : 아, 잠수장비 들고 가고?

남자 2 : 예.

박재창 : 몇 시에 출발했습니까?

남자 2 : 상황 받고 바로 출발했는데요.

박재창 : 몇 시죠, 그게?

남자 2 : 몇 시에 출발했는지는...

박재창 : 아, 예, 알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

남자 2 : 예.

(통화연결음)

남자 3 : 예. 구조대입니다

박재창 : 예. 수고하십니다.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남자 3 : 예.

박재창 : 예. 진도 사고 관련해서 우리 동해서 구조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?

남자 3 : 아, 지금 서장님 지시 지금 따르려 하는데 지금 저희 다 출동장비 지금 갖추고
지금 서장님 지시받으러 대장님 올라가셨습니다.

박재창 : 아, 대기 중이네요?

남자 3 : 예, 예.

박재창 : 동해 강릉 항공대에서 우리 지원한 건 없고요?

남자 3 : 강릉 항공대요?

박재창 : 예.

남자 3 : 예. 항공대하고 저희하고는,

박재창 : 없고?

남자 3 : 예.

박재창 : 아, 예, 알겠습니다.

남자 3 : 예. 수고하세요.

박재창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2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44분 45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해양수산부 상황실 / 포항서 / 본청 수색구조과 박재창

남자 1 : 예. 감사합니다. 해경청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수고하십니다. 해수부 상황실인데요.

남자 1 : 예.

남자 2 : 어디, 어디로 갔어요?

남자 1 : 예?

남자 2 : 병원... 구조자들 병원 어디,

남자 1 : 아, 구조자들 병원이요? 잠시만요. 확인해 봐야겠네요. 잠시만요.

남자 2 : 기다릴게요. 예.

(전화 끊김)

(통화연결음)

남자 3 : 예. 포항 **입니다.

박재창 : 예.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

남자 3 : 어디요?

박재창 : 본청 수색구조과입니다. 아까 통화했었는데요.

남자 3 : 예.

박재창 : 어떻게, 포항 항공구조대하고 통화해 봤습니까?

남자 3 : 예, 통화했습니다.

박재창 :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?

남자 3 : 구조대 사무실에서 형산강헬기장까지 한 5분 정도, 10분 걸린다고요. 우리가 여



기서 이륙 결정이 나면, 전화 주면 바로 형산강헬기장으로 오기로 했어요.

박재창 : 아, 포항항공대 다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, 버스가?

남자 3 : 버스에서 2명,

박재창 : 내려가지고?

남자 3 : 내려가지고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어요.

박재창 : 아, 지금 사무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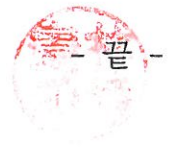
남자 3 : 예, 예.

박재창 : 아, 그러면 조금 이따가 호전되면 그거 타고 갈 거네요?

남자 3 : 예, 예.

박재창 : 아, 예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

남자 3 : 예.



◆ 녹음 순번 : #23

◆ 녹음 일자 : 2014년 4월 16일 오전 11시 57분 08초

◆ 대 화 자 : 본청 상황실 / 유기홍 의원실

남자 1 : 예. 상황실 박 경장입니다.

남자 2 : 예. 수고하십니다. 국회 유기홍 의원실이고요.

남자 1 : 국회 어디라고요?

남자 2 : 국회 유기홍 의원실입니다.

남자 1 : 유기홍 의원실이요?

남자 2 : 예. 아까 한번 통화했었는데요. 상황 한 번 더 확인 전화 드렸거든요.

남자 1 : 아, 예. 죄송합니다만 여기 상황실이고요. 저희 대변인실에서 일괄적으로 외부에
다가 연락하고 있거든요. 대변인실 전화를 알려드리겠습니다.

남자 2 : ** 지금 대변인실 통화는, 기자들이 아니잖아요. 빨리 알아보려고 전화 드린 건
데요. 실장님 좀 바꿔주세요.

남자 1 : 실장님이요? 잠시만요.

남자 2 : 바쁘시면 간단하게 여쭙볼게요. 학생들 구조됐다고 하는데,

남자 1 : 예?

남자 2 : 지금 언론에서는 학생들은 다 구조됐다고 하네요.

남자 1 : 그게 다른 저기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. 우리 해경에서 나간 자료가 아니고 모
르겠습니다. 어떤 루트를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확인이 안 됐는데,

남자 2 : 그러면 알겠습니다. 상황만 ** 그러면 학생들은 다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고요.

남자 1 : 예, 예. 지금 계속 구조작업 중입니다.

남자 2 : 그러면 지금 상황실에서 알고 계시는 인원은 몇 명 정도,



남자 1 : 아직 확인 안 되고 있습니다.

남자 2 : 아직이시고요?

남자 1 : 예, 예.

남자 2 : 미확인이시고, 학생들은 아직 전원까지는 아니란 말씀이죠?

남자 1 : 예. 그리고 우리 해경뿐만 아니라 인근 어선이랑 상선들도 동원돼서 같이 구조
작업 하고 있기 때문예요. 저희가 정확히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카운트를 하
기가 좀 어렵습니다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 그러면 확인된 학생수는 어떻게 되시죠?

남자 1 : 학생수는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요. 지금 인원이 11시 20분 기준으로 162명, 우
리 해경 쪽에서만 구조한 게 그렇게 되거든요.

남자 2 : 162명이요?

남자 1 : 예.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.

남자 2 : 예, 알겠습니다. **

남자 1 : 예.

